

공공의 공백

고독의 탑

고독의 시작은 타인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의 발견이다.

이별이나 폭력적 장면, 갑작스럽게 찾아온 시간의 단조로움에 대한 의식, 이처럼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상처나 망설임이 나타날 때 고독은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고독은 개인의 고통이자 타인으로부터의 소외로 생각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주체는 타인에 대해 열려 있고 타인을 위해 고통받을 수 있음을 수용한다면 지독한 고독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이해로 연결된다.

여기, 타인을 만나기 위한 그리고 진정한 고독에 대해 사색할 수 있는 탑을 제시한다.

이 탑은 반드시 인적이 없는 산속에 설치되어야 하지만 사람들의 접근을 위해 도시 한 복판에 설치하는 것도 좋다. 지하 오층 깊이, 지상 십 오층 높이의 타워를 세우고 내부에 일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지상 층은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사면을 유리로 처리하고 지하는 콘크리트로 마감한다.

엘리베이터 내부는 적당히 넓지만 의자나 소파 등의 앉을 만한 거리는 놓아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탑은 육체적 휴식보다는 사고의 변화를 요구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 탑은 관광용이 아니며, 더욱이 종교적 사색을 위한 것도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오를 수 있는 자격은 있다.

얼굴을 맞대는 일에 공포가 있거나 낯설음에 지친 이들이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겠지만 대부분 이런 이들이 이 장소를 방문하여 이용할 가능성은 오히려 적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지만 엘리베이터만 홀로 운행시키는 것도 고독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상징적으로는 적당할 수 있다.

속죄의 공원

세상에는 비바람이 없어 비바람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상한 일이 어떤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의지와 자본에 대한 열망의 정도에 따라 비바람이 사라지는 곳이 있기 마련이다. 비바람이 사라진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발생이지만 매우 인위적이고 혹독한 역사를 전개한 곳일수록 빠르게 생겨난다. 혹독한 역사란 생존과 계급간의 투쟁을 전개한 자본주의가 사회 구성원의 인식에 시냇물처럼 자연스럽게 작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이러한 과정을 겪은 곳은 현재 물질과 제도의 넉넉함이 그들의 정서에 오히려 해악을 가할 지경까지 온 경우를 말하며, 이때 그들은 자신들의 혹독한 과거를 그리워하기 시작한다.

혁신 이후에 몰락이, 몰락 이후에 혁신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순환 구조는 다분히 신화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가능하다. 여기서 신화란 현대 자본주의와 재배치된 원형을 말하며 이때 비

바람은 어떻게든 다시 발생되어야 하는 순환구조를 말한다.

여기, 비바람을 그리워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공간이 있다. 일인용 공간이기 때문에 넓은 면적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펌프를 작동시킬 전기 시설만 있다면 누구도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공간의 비바람은 비록 진짜는 아니지만, 혼자서 비를 맞다 보면 괜히 눈물이 흐를 수도 있고 정도가 심해지면 자신의 원죄를 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국민소득 이만 오천 불 이상의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이 공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컨대 일인당 국민소득이 이만 오천 불 이상이란 지표는 준법정신이 투철한 이들이 구성원의 삼분의 이를 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이가 삼분의 이 정도가 됨을 의미한다. 국민소득 천불 미만의 국가에 설치하는 것도 다른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승리의 광장

승리란 자기만족이기 때문에 이 광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삼분의 이가 자기만족에 빠진 곳에서만 가능하다.

자칫 자기만족을 부정적 나르시즘이나 에고이즘으로 생각해서는 위험하다. 개인을 희생하면서까지 공동의 진보에 동의하거나 공동의 신념이 사회를 개혁할 수 있다고 믿는 태도가 자기만족이기 때문이다. 진보의 역사는 이렇게 쓰여 졌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만족적 역사기술과 이에 대한 국가의 대응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것이 승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 삼만 평 정도의 공터가 요구된다.

광장의 중앙에 다섯 개의 꼭지점을 임의로 정한 후, 별을 생각하며 자신이 정한 시작점에서 다른 꼭지점으로 이동한다. 이동 시, 준비한 액체를 바닥에 흘리면서 걷는다. 액체의 종류는 내구성이 좋은 에폭시 계열의 페인트가 적합하며 색상은 어느 것이어도 좋지만 빨간색이나 파란색을 권한다.

걷는 속도는 중요치 않다. 그러나 비장한 마음을 갖기 위해 되도록이면 빠르게 걷는 것이 좋다. 다섯 꼭지점을 한 번 걷고 나면 이 행위를 멈춰야 하는데 이것은 페인트의 건조 시간이란 제약 때문이다. 이때 페인트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 그 위를 걷게 되면 실로 당황스러운 결과가 발생하니 아무도 얼씬거리게 해서는 안 된다.

페인트가 대충 마른다 싶었을 때 똑같은 행위를 다시 한다. 한 사람이 해도 되지만,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다양한 별 모양을 위해 좋다. 이러한 행위를 통틀어 약 만 팔백 번 정도하고 나면 이 광장은 완성된다.

이 광장이 완성되면 우리의 과거는 영광으로 바뀌고 미래에 대해 노래를 부르며 모두가 자신감을 갖게 된다.

평화의 광장

평화란 다툼과 반목이 없는 것을 말한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진보라는 이성의 각을 무디게 하는 편안함을 제시해야 한다.

공동체는 감성에 의해 운영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인해 보다 전문적이고 완벽에 가까울 만한 시스템을 제시하곤 하는데, 검증된 시스템이라고 해도 항상 이에 대해 불만스럽거나 화가 치미는 무리들이 발생한다. 이들을 무시하지 않으려는 제스처만 보여도 꽤나 민주적이고 진보된 사회라고 생각할 수 있다. 종교, 이념, 인종, 영토 등과 같이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커다란 문제로 인한 반목을 제거하는 것만이 평화스럽다고 할 수는 없다. 제거했다고 판단하는 순간 어느 구석에서 누군가 울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사소함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는 적어도 거대한 이슈에 대한 웅장한 조정(타협)보다도 개인에게 평화스러운 마음을 발생시키는데 훨씬 관대할 수 있다.

평화의 광장은 공간적으로나 시각적으로나 보행자에게 어떠한 정치적 이익이나 조건 없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정확히는 교란시키기 위해) 널따란 공터에 벤치들과 하나의 예술품 정도만 설치해야 한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강조해야 하지만 예술품(조각물) 하나 정도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공적 사업에서 지역민을 위해 시에서 어느 정도 자금을 사용했다는 증거로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텅 비었다는 것만 강조하는 것은 평화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보통사람들에겐 이해하기 쉽지 않은 주제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우 정교하고 예민한 공학의 도움으로 벤치들과 조각물은 계절에 따라 그 표면의 온도가 달라지게 만드는 것을 제시한다.

다시 말하면, 광장 바닥에 계절에 따라 난방 및 냉방이 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여름철에는 광장 바닥은 물론이고 벤치들과 조각물이 매우 시원하여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광장 바닥에 눕거나 쉴 수 있으며, 겨울철에는 벤치들과 조각물이 매우 따뜻하여 친구를 기다리는데 별로 큰 지루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잘 곳이 마땅치 않은 도시 부랑자들에게겐 더 없이 좋은 장소로서 작용하게 된다.

만약, 이 광장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장에서 자리싸움이 발생한다면 평화란 앞으로도 인간에게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인의 이상으로써만 존재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자유 의 광장

자유라는 이름을 가진 광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명칭을 가진 광장은 여러 나라에 이미 존재한다.

여기 제시하는 광장은 역사를 반영치 않도록 조심하거나, 굳이 반영케 한다면 이방인의 서술을 토대로 하고, 정치적 의도가 명확히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충분히 자유롭다고 느끼는 구성원이 삼분의 이가 넘는 지역(국가)에 조성하는 것이 적당하다.

먼저, 고층빌딩에 둘러싸인 질 좋고 평평한 바닥을 가진 공터가 요구된다. 과거가 자신을 여전히 공격하고 있다고 느껴지거나, 미래와 현재를 뒤범벅 시켜 현재의 문제를 자주 뒤로 미루거나, 과거처럼 미래가 영광스럽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불안을 가진 이들은 근처의 아무 빌딩을 선택하여 그 꼭대기에 오른다. 건물 꼭대기에 오를 때 페인트가 담긴 풍선을 소지한다. 페인트의 색상은 빨간색으로 통일한다. 색을 통일하지 않을 경우 자칫 우스꽝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한 가지 색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꼭대기에 다다르면 아래를 내려다보고 적당한 지점을 겨냥하고 공터 아래로 준비한 풍선을 던진다. 풍선이 터지고 바닥에 얼룩이 생기면, 불안했던 이들은 평온해지고, 장난스런 사람들은 숙연해 지며, 의심이 많은 이들은 웃음이 나며, 행복감이 충만했던 이들은 반대로 현재의 환경에 의심을 품게 되어 평등해질 수 있다.

위에 열거한 내용 이외의 감정을 가진 이들이 이 근처에 얼씬거리면 다툼이 발생한다.

윤리의 탑

윤리의 탑을 세우기 위해서는 절실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탑을 공공장소에 건립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곳이라면 적어도 인권에 대해 매우 진보적이어서 사회적 우화가 넘실거리는 곳일 확률이 높다. 종교가 그 지역(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곳이라던가, 신념이 윤리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작용을 하는 곳이라던가, 기부 산업이 발달하여 후진국의 어린이를 돕는 이가 지역(국가)의 절반을 넘는 곳이라면 이 탑이 건립될 경우가 희박하다.

이 탑은 단순한 조각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들은 탑으로 입장하여 꼭대기에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나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탑에 오르기 위한 가혹한 조건에 충족돼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이들이란, 출생과 동시에 호흡마저 가난하여 평생 먹을 거리만 찾아 다닌 변두리 거지들, 파산하여 절망을 목표로 살아가는 부랑자들, 자신에 비해 매우 넉넉해 보이는 비둘기들을 미워하는 도시 빈민자들, 멍하니 있는 시간이 너무 넘쳐나는 실직자들, 하루 중 구제센터에서 줄 서기가 유일한 낙인 노인들, 생계를 위해 가족과 이별하여 홀로 살아가는 청소년들, 희망을 안고 이 지역을 찾아 왔으나 이제는 자신의 고국에 돌아갈 희망만을 안고 사는 외국인들, 말수가 극단적으로 적어져 남과 대화한지 일년 이상 된 마약 중독자들을 말한다. 이렇게 재정적으로 궁핍하거나, 사회에서 박탈되어 이 탑이라도 오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탑 입구에 있는 데스크를 방문하여, 자신의 신분과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받는다. 이 절차에 합격된 이들은 이 탑을 오르는 대가로 1회, 한화 삼 만원을 지급 받는다. 이때 탑의 정상에 올라 한 시간을 서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입장객에게 강제적으로 부여된다.

공공장소에서 가난으로 인해 자신의 외형을 다른 이들에게 공개하는 장면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에겐 너무도 잔인하고 무섭게 느껴질 수 있으나, 관광객이나 이방인의 경우는 살아 있는 조

각쯤으로 생각되어 사진기를 들이 댈 확률이 높다.

돈이 없다는 이유와 돈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 탑을 오르는 사람들의 인격과 인권이 조정 당하는 이 탑은 눈물과 좌절, 분노와 저항이 존재하게 된다.

이 탑이 건립 되면, 정의가 많은 이들은 약자를 위한 사회 제도가 조정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똑똑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이들은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찾을 것이며, 착한 이들은 불평을 하며 기도할 것이고, 못난 이들은 아무 생각이 없이 자신의 삶에 고마워 할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통해 인간의 조건에 대해 생각할 것이다.

이 탑이 건립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탑에 오르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영광의 길

영광이 오기를 고대하거나 과거의 영광의 빛에 전율을 느끼는 이들은 어디에서도 항상 존재한다. 영광은 이를 맞는 이들의 태도가 중요한데, 추상적인 관념으로서 순수함으로 빠지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한 목적일 경우 자기 파괴적인 에너지를 가진 신화로써 작용하게 된다. 이 경우 외곽에서 바라보는 이들에겐 이 모습이 매우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영광이란 과거와 현재의 현혹적인 환상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속적인 진보에 대한 약속과 끝없는 개선만이 영광을 찾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은유의 의미로 범벅 된 영광의 길을 제시한다.

도시의 버려진 지역의 일직선의 거리를 선택한 후 길바닥과 주변 건물을 모두 흰색으로 도색 하여 매우 신비로울 만한 부유의 공간을 연출한다.

건물 외벽에 스타디움에서 볼만한 매우 강력한 조명기들을 설치한다. 조명기는 바닥에서 육 미터 정도의 높이로 정한다. 조명의 광량은 십 평방미터에 10,000와트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1미터 간격의 건물 외벽마다 1,000와트 조명을 다섯 개씩 설치해야 함을 의미한다. 굉장한 양의 전력이 요구되지만 영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지역(국가)의 동의를 얻는데 어려움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잘 사는 지역(국가)이라고 해도 1일 1회 해가 다 지고 난 뒤 약 한 시간 후쯤 조명들을 작동시킬 것을 권한다. 이는 엄청난 전력의 소모를 줄일 수 있고, 보다 극적인 효과를 얻는데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 거리가 완성이 되면 삶으로 이루어진 도시 풍경은 제거되고, 일상은 범접할 수 없는 의미로, 범접할 수 없는 의미는 일상으로 지각되는 변증법적 시각이 발생한다. 이는 지치지 않고 벌어지는 진기한 거리 행진과 과장된 기념물, 전시회와 박물관과 같은 현혹적인 환상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해주며, 눈부신 거리에서 만나는 보행자들 간의 얼굴 맞대기는 비현실적이고 몽환적인 환경과 함께 영광을 맞이 할 희망을 제공한다.

만남의 광장

타인과의 만남에 두려움이 있는 이들과 타인과의 만남에 비관적 시각을 가진 이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공간이 여기에 있다.

이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은 예산이 예상되나 그 지역 공동체의 합의가 우선 되어야 한다. 먼저, 이미 너무 오래되어 수명이 다한 5층 이상의 건물을 그 지역민의 동의를 얻어 구매한다. 오래된 건물은 도시의 건물들이 의례 그렇게 죽어 갔듯이 전문 업체의 도움을 통해 폭파시킨다. 폭파된 잔해를 그대로 놔두고 단지 위험한 부분들 즉, 튀어 나온 파이프, 깨진 유리, 날카로운 콘크리트 모서리들만 제거하거나 마모시킨다. 뾰족한 부분들이 제거되면, 사람들의 다리가 빠질 만한 구멍들을 콘크리트로 다시 메워 나간다. 빈 부분이 다 메워지면 폭파된 건물의 잔해는 하나의 덩어리로 남게 되고 이 광장은 완성된다. 완성된 광장은 자칫 커다란 조형물로 보이기도 하지만, 광장 위를 비스듬한 자세로 지나다니는 보행자들로 인해 언덕 정도로만 보일 수도 있다.

경사로 인해 중심을 잡기 위한 자세들은 타인을 만날 때 자신의 자세가 이러한 광장의 형태로부터 발생된 것이라고 핑계를 댈 수 있으며, 이러한 핑계로부터 대화는 자연스럽게 시작될 수 있다. 이러한 자연스러움은 얼굴을 서로 맞대어 상대를 파악하려는 폭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며 오히려 얼굴 맞대기가 아닌 상대의 말투, 몸짓 그리고 배려를 통해 진정한 만남이 발생된다. 이런 어정쩡한 자세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자세이자 장면이어서 광장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풍경을 제공하는 이점도 있다.

이 광장은 전쟁과 테러 그리고 지진등과 같은 재해로부터 아픈 기억을 가진 지역에는 권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 이 광장의 이름이 바뀌어야 하나, 무엇 보다 애초에 조성이 돼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픈 상처는 기억 속에서 다르게 진화될 뿐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글: 김홍석, 2007